

2019 멕시코 식품박람회 해외국가관별 주요트렌드 현황

2019 멕시코 식품박람회 (Expo ANTAD & Alimentaria 2019) 개요 및 트렌드

1. 2019 멕시코 식품박람회(Expo ANTAD & Alimentaria 2019) 개요

- 행사명 : 2019 멕시코 식품박람회(Expo ANTAD & Alimentaria Mexico 2019) / 4회
- 기간 : 2019. 3. 5.(화) ~ 3. 7.(목) * 개장시간 : 10:00~18:00
- 장소 : Expo Guadalajara(Guadalajara, Jalisco, México)
- 주최 : Alimentaria Exhibitions, S.A.
- 품목 : 식품 및 음료, 유제품, 고기류, 주류 등
- 성격 : 국제식품박람회
- 규모 : 55,000m²

2. 2019 멕시코 식품박람회 주요 트렌드(종합)

- 멕시코는 세계 비만을 2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며 비만이 심각한 국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
 - 웰빙(Bienestar)에 대한 관심과 인식변화가 높아지고 있음
 -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증가하면서 칼로리가 낮은 대체 감미료(Endulzante)를 활용해 가공식품을 선보임
- 건강식품 및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
 - 건강한 먹거리 등이 이슈 됨에 따라 natural(천연), orgánico(유기농), sin azúcar(무설탕) 등에 문구를 강조하여 전시함

1. 일본관

- 참가규모(업체수) : 108㎡(12개 업체)
- 주요 참가품목 : 말차, 주류, 양념 등
- 국가관 주요트렌드 및 이슈상품

- 12개 업체 중 6개 업체 말차 상품을 내세워 참가
 - 건강을 중시하는 현 멕시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게 말차의 효능 등을 소개하여 일본 말차에 대한 관심 증가



일본관 전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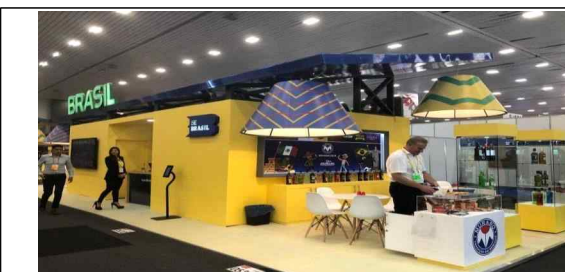


이슈 상품 : 가루녹차(말차)

2. 브라질관

- 참가규모(업체수) : 90㎡(10개 업체)
- 주요 참가품목 : 양념 및 음료
- 국가관 주요트렌드 및 이슈상품

- 중남미 국가는 대체로 짜게 먹는 편이며 소금이나 양념을 더해 자극적인 맛을 선호함
 - 향신료가 곁들여진 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향신료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주를 이룸



브라질관 전경



주요 상품 : 향신료